

## 그러나 노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고립과 조롱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도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부와 권력, 인기와 온갖 유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든 논리가 이렇게 대중적인 동의를 얻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죄가 넘치는 사회에서 신자가 고립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었다. 심판의 방법은 홍수에 의한 멸절이었고 멸절의 범위는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다.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예외였다.

##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창세기 6:8-9**

본문은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한다. 의인,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됨이 죄 없는,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아 역시 패역한 세대의 사람이었다. 그가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사람이 원한다고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미련한 늪은이

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자신의 직계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짐승들까지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했다. 크기와 모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묵묵히 배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드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까지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린 일이 없었고 사람들도 경작을 해서 식량을 얻었기 때문에 배라는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바닷가도 아닌 곳에서 큰 배를 만드는 행위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 것이다(방주는 홍수가 시작된지 40 일만에 물에서 떠올랐다. 물과는 거리가 먼 내륙에서 만들어졌다).

그래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홍수가 일어나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죽으리라는 말씀, 방주를 지으면 짐승들이 나아오리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리라는 말씀까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 저축했다.

##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창세기 6:22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자신의 가족과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성실하게 모았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비 한 방울 내려본 일이 없는 때, 물에서 배를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쌓아두는 노아가 조롱을 피할 수 없었듯이 두 번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조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미련한 늙은이가 만든 방주가 홍수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주이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미련함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